

# '감찰 횡포' 몸살 앓는 광주경찰

경찰청의 무차별적인 '감찰 횡포'로 광주지방경찰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청 감찰팀이 하옥현 전(前) 광주경찰청장에게 감찰 이후 최근에는 모든 간부까지 소환조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찰팀은 지난달 말 광주경찰청 경감급 이상(총경·경무관 제외) 간부 47명의 인사기록 카드를 모두 가져간 데 이어, 서울로 불러들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에 올라가 조사를 받은 간부는 8일 4명 등 현재 20여 명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소환 여부를 촉각을 세우며 대부분 일손을 놓고 있다.

특히 감찰팀은 조사 대상자에게 당일 오전 8시께 소환통보를 하고 오후 1시까지 본청으로 들어오도록 지시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런 소환 통보로 광주청은 당일 처리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하고, 인수·인계나 지시할 시간도 없어 업무가 마비된

### 경감급 이상 간부 매일 서울로 소환 오전 8시 통보 "13시까지 올라오라" 하 前청장 '뒷거래' 의혹지르기 조사 업무 마비에 직원 사기 크게 떨어져

상태다.

감찰팀은 소환자들을 대상으로 ▲하 전 청장을 알게 된 시기 ▲지난 7월 광주청 전입 때 인사청탁 여부 ▲떡값 등 금품 전달 여부 ▲J·N·또 다른 N·S·M·H 등 업체, 화가 A씨 등과 하 전 청장의 뒷거래를 알고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자술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조사도 받지 않고 기다리다 내려오고 있으며, 2~3일씩 불러들이는 경우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팀은 또 민간인 신분인 광주권 건설업체 등 업계 관계자와 일부 유지를 상대로 하 전 청장에 대한 금품 및 향음 제공 여부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본청 감찰의 조사는 지난 7월 개청 준비과정에서 광주청 전입을 위해 일부 간부들이 하 전(前) 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을 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청 경감급(계장)

이상 주요 보직의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임명하기 때문이다.

본청 감찰이 확대된 것은 ▲직위해제된 하 전 청장이 인사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등에 대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하 청장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경감·경정·총경급 A·B·C·D 씨 등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자 '물증'을 찾기 위해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택했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광주청의 한 관계자는 "아침에 전화해서 오후 1시까지 본청으로 올라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고, 감찰 조사는 '출장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하루 30여 만원의 교통비를 고스란히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면서 "뚜렷한 혐의점이 무조건 서울로 불러 억박지르고 회유하는 식의 감찰은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늘立冬...제설장비 배치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을 하루 앞둔 7일, 광주시 건설관리본부(본부장 김현웅) 직원들이 북구 동운 고가도로에서 폭설 등에 대한 모래주머니를 쌓아두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모래주머니·친환경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확보, 주요 가로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나원침 (7352) 김중두



다들 물어봐 신제품 KCC

DS건설(주) KCC-최고, 연수, 도어, 대터널

KCC방호, 시스텔방호 생산·시공

▶ 010-5202-14-3002 ▶ 010-5202-14-3003

(주)본드나리 KCC-슬리본, 메인도, 대터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타이프

▶ 010-5202-14-3002 ▶ 010-5202-14-3003

## 부부·가족 짜고 '보험 사기' 7억 받고 호화생활한 '유령'

멀쩡한 남편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희대의 사기극이 4년 만에 들쭉났다.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이상철)에 구속기소된 박모(40)·문모(여·25)씨 부부와 박씨의 여동생 박모(35)·불구속)씨 등 3명의 사기 행각에는 담당 검사들도 혀를 내둘렀다.

박씨는 지난 2003년 S화재·생명 등 6개 보험사에 21억원의 사망보험 10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어 2004년 8월19일 태풍 '매기'의 영향으로 폭우가 내리는 지리산 뱀사골로 여름휴가를 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 여동생 박씨는 오빠가 급류에 휩쓸려 사라진 것을 본 목격자였고, 신고자 역할을 했다. 박씨의 여동생은 특전사 출신 남편의 동료

를 불러 "물에 휩쓸려간 오빠를 찾는다"며 수색 작업까지 하는 '쇼(Show)를 벌여 인연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듬해 2월, 아내는 남편의 본직인 담양군 창평면 사무소에서 인정사망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박씨는 1~5년이 걸리는 실종사망선고 대신,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인정사망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인정사망제도'는 사체 등 사망의 확증이 없지만, 재해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장 등이 작성한 증명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호적에 사망자로 기재하면 끝나는 제도다.

문씨는 이를 근거로 2005~2006년 3개 보험사에서 남편의 사망 보험금 7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유령'이 된 박씨는 매체의 신봉증을 도용, 전주시내에 새 '동지'를 틀고 딸까지 낳는 등

### "급류 휩쓸려 사망" 신고 수색 작업 벌이기 '쇼' 에쿠스 타고 골프 즐겨 집에는 고급양주 수십병 보험금 더 타려 소송 '들통'

제2의 삶을 시작했다.

박씨는 에쿠스 차를 타고다니며 매주 2~3회 골프를 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골프프로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였다. 위증을 한 여동생에게는 3천만원을 주고, 처가에도 6천만원을 건넸다. 집에서는 밸런타인 30년산 양주 수십병·'아르마니' 등 명품 의류·보석 등이 쏟아져 나왔다. 완전범죄 직전까지 갔던 부부는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레이더'에 포착돼 덩미를 잡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공무집행 방해 '큰 코' 다친다

### 전남경찰, '무관용' 4개월만에 32명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김남성 청장 취임 후 공무집행 방해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이후 최근 4개월 동안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2명을 입건해 이중 3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법처리한

72명에 비해 29.4%(30명)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신고출동한 경찰관 폭행 57건 ▲단속(음주운전 등) 불만

경찰관 폭행 15건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 내 행패와 업무방해 23건 ▲경찰 적대감 표현 등에 따른 공무방해 7건 등이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발생 건수는 10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포차' 500여 대 판매 3억 행진 중고차 매매업자 영장

차를 사고팔면서 자동차등록원본의 소유주를 이전하지 않은 채 세금·과태료를 내지않는 속칭 '대포차' 500여 대를 판매해 3억여원을 행진 중고차 매매상이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은 7일 명의 이전 없이 중고차를 시중에 유통한 한모(34)·광주시 북구 오치동)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월 광주 지역에 M 중고차 매매상을 차린 뒤 인터넷을 통해 사들인 택시·화물차 등 500여 대를 '대포차'로 만들어 판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중고차를 매

매상사 명의로 이전한 뒤 구입자들에게 "명의를 옮겨가지 않아도 되며, 세금과 과태료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50만~60만원의 웃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과 과태료 등은 서류상 차 주인인 한씨의 매매상사로 부과되기 때문에 과속을 해도 실제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면서 "명의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대포차 구입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광특기자 kroh@kwangju.co.kr

말 초등학교 찾아가 급우·교사 폭행

## 상나팔

○충남 부여경찰은 7일 초등학교 말의 같은 반 친구들

과 이 학교 여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모(여·47)씨를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30분께 부여군 부여읍 모초등학교 후문에서 딸(12)의 같은 반 학생인 조모(11)군과 박모(12)양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한씨는 또 이를 목격한 교사 서모(여·40)씨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학교 측에 얘기해 달라"며 말리자 "참견 말라"며 서 교사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

○한씨는 "딸이 자꾸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사줬다'고 얘기하기에 돈을 뜯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같은 반 친구에게 '자꾸 먹을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애들의 명단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아 학교에 직접 찾아가다"고 진술. /연합뉴스

2007. 11. 8.

천년 목사고을 나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주시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전남농림수산청

전남문화체육관광청

전남환경녹색도시개발청

전남경찰청